

##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자율 주행 자동차

KISTI 미리안 『글로벌동향브리핑』 2014-11-05



Google's self-driving car

장비 고장에 대한 안전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 영국, 호주, 인도, 중국, 일본 등에 있는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자율 주행 자동차에 대하여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

"최근에 자율 주행 자동차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자율 주행 자동차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자율 주행 자동차는 여러 대형 연구 프로젝트와 정부 자금 지원이 집중되고 있는 분야인 커넥티드 자동차(connected car: 보통 무선근거리통신망(WLAN)과 함께 인터넷 접근이 가능한 자동차)의 궁극적인 목표이고 완전한 구현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미국 미시건 대 교통 연구소(UMTRI: University of Michigan Transportation Research Institute)의 브랜든 쇼틀(Brandon Schoettle)이 말했다.

브랜든 쇼틀과 미시건 대 교통 연구소(UMTRI) 소속 동료 연구자들은 미국, 영국, 호주에서 수행된 자율 주행 자동차에 대한 이전의 여론 조사 연구에 기초하여 인도, 중국, 일본 등에서 1,700명 이상의 응답자를 포함시키는 설문 조사를 확대 시행하였다.

연구자들은 중국에서 87퍼센트, 인도에서 84퍼센트의 응답자들이 자율 주행 자동차에 대하여 긍정적인 관점을 가졌다. 이는 호주에서 62퍼센트, 미국에서 56퍼센트, 영국에서 52퍼센트, 일본에서 43퍼센트의 응답자가 긍정적인 관점을 가진 것과 대비된다. 일본 응답자들 가운데 절반은 중립적이었으며, 미국은 16퍼센트가 부정적인 관점을 가져서 6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중국, 인도, 일본의 응답자들 가운데 80퍼센트 이상은 자율 주행 자동차가 충돌 사고의 횟수 및 심각도 모두를 줄일 것이라고 믿었다. 미국, 영국, 호주의 응답자들은 대략 70퍼센트가 같은 의견이었다.

그리고 중국 및 인도의 응답자들은 자율 주행 기술이 교통 혼잡을 줄이고(중국 및 인도 모두에서 72퍼센트), 운행 시간을 줄일 것(인도는 74퍼센트, 중국은 68퍼센트)이라는 것에 더 낙관적이었다. 반면에 일본 응답자의 56퍼센트와 미국, 영국, 호주의 응답자들 가운데 50퍼센트 미만이 교통 혼잡을 완화시킬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마찬가지로, 이들 국가에서 응답자의 50퍼센트 미만이 운행 시간을 단축시킬 것이라는 항목에 동의하였다.

비록 중국과 인도의 응답자가 자율 주행 자동차의 장점에 대하여 호의적인 의견을 표현하였지만, 완전한 자율 주행 자동차를 타는 것에 대한 우려에 대하여 두 국가는 달랐다. 인도의 약 79퍼센트 응답자는 매우 높거나 적당한 우려를 표현했으나, 중국은 49퍼센트만이 같은 의견이었다. 다른 국가의 경우 미국은 67퍼센트, 호주와 영국의 57퍼센트, 일본은 52퍼센트였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 다른 국가의 응답자들과 비교하여 중국과 인도의 응답자들은 장비 고장, 해커에 의한 시스템 및 차량 보안, 위치 및 목적지 추적 등과 같은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보행자 및 자전거와의 상호작용 등에 더 많은 우려를 표시하였다.

그럼에도 중국(96퍼센트)과 인도(95퍼센트)는 더 높은 비율로 자율 주행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에 대하여 최소한 약간의 관심이 있었다. 이는 일본(77퍼센트), 호주(68퍼센트), 미국(66퍼센트), 영국(63퍼센트) 등과 비교하여 더 높은 것이다.

"6개국의 설문 응답자들은 자율 주행 기술을 갖춘 자동차를 타는 것에 대하여 높은 수준의 우려를 표시하였지만, 대부분 자율 주행 자동차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그 장점에 대하여 낙관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자율 주행 자동차 기술을 원하였다"고 브랜든 쇼틀이 말했다.

[기존 연구 세부 정보 연결]

<http://umtri.umich.edu/our-results/publications/survey-public-opinion-about-connected-vehicles-us-uk-and-australia>